

“출판을 문화전략의 핵심으로 키워야”

21세기 한국사회 문예부흥과 출판문화

이수성

신한국당 고문

오늘 우리 출판계를 이끌어가는 출판인들을 보니 옛 지인들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가르쳤던 교직자의 입장에서 출판·출판인과의 관계는 언제나 소중한 인연, 남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이 모임에서 김언호 사장은 “출판인은 한 시대의 문화와 학문·사상의 기획자이며 연출자”라고 말할 적이 있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한권의 책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샘물이며 정신의 원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인은 바로 인간정신의 장인이며 한 시대를 바르게 이끄는 견인차가 아닐 수 없다.

문화의 힘은 진정한 국력

바로 나 자신 출판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부족한 대로 스스로 정립하고 성찰하며 끊임 없는 개선의 계기를 찾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 가운데 “농부는 땅을 밟으로 삼고, 관리는 백성을 밟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대한 것도 책을 통해서다. 우등불 아래에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감동으로 날을 새웠던 수없는 날들이 생각난다. 풍성하지는 않지만 나 자신 수없는 독서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출판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덕분이고, 어떻게 보면 바로 여러분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요즘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가. 국정은 거의 표류상태이고 국민의 마음은 온통 불신과 허탈감, 그리고 실의에 가득차 있다. 경제도 어렵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마음을 편히 하는 대신 걱정만 더 안겨주고 있는 듯해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산적했던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에 발이 묶여 있다.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갈 힘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의 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뒤죽박죽이다. 조선시대 전통 사회의 가치관, 일제의 식민문화, 무분별하

게 들어온 서구문화, 군사문화, 우선 잘 살고 보자는 식의 물질주의, 거기다가 소위 X세대의 문화까지 뒤섞여 뚜렷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이다.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잃어버린 것 또한 너무 많다.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나는 평소 이 모든 요소들을 융합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해왔지만, 사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화의 힘일 것이다. 한 사회, 한 나라를 평가하는 근본적인 척도는 바로 문화이다. 높은 수준의 문화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며 그 나라 국민의 격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세기에 대비해서 정치도 경제도 새로워져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가 바로 서고 융성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전략이 없다는 통일도 민족의 발전도 이뤄낼 수 없다. 출판인 여러분이 이끄는 출판은 한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고 선도한다. 또한 출판이란 당대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의 정신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출판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생산자요, 시대정신의 창조자이며 올바른 역사의 담보다. 우리나라에서 출판인들의 지적 창조작업이 멈춰진다면 민족정체성의 확립, 공동체문화의 창조는 불가능할 것이며, 민족의 미래란 꿈꿀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출판인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책을 만드는 일은 신성하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벽돌을 하나씩 쌓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출판인, 그리고 국민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적 독서운동 전개할 때

오늘의 출판 현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알고 있다.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가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지 못한 현실, 하루에 몇십개씩 문을 닫는 출판사와 서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아팠던 적이 많다. 일부에서는 이제 세상이 인쇄활자 시대에서 멀티미디어 시대로 옮겨져 더 이상 책의 효용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떤 조사에

세상이 아무리 영상시대, 멀티미디어시대가 된다 해도 책의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출판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수성 고문

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하루에 TV를 보는 평균 시간은 두시간이 넘지만 책을 읽는 시간은 37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성인 10명중 2명은 1년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란 적도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독서량이 증가하여 책 판매가 갈수록 늘어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인구의 19%가 항상 도서관을 드나든다고 하고, 미국민들은 여유비용의 10%는 꼭 책을 사는데 쓴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또 일본국민은 95년에 비해 96년도에 약 2천5백만부 가량의 책을 더 구입했다고 한다. 이 나라들은 영상매체와 멀티미디어의 발전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책을 가까이하는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정체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매우 착잡하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함께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세상이 아무리 영상시대, 멀티미디어 시대가 된다 해도 책의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출판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예컨대 전자출판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판의 근본정신은 일관적이다. 책에는 함부로 배울 수 없는 정성과 인내,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내재한다. 인간을 사유하게 하고, 상상력을 키워준다. 더 나아가 사회를 진정한 공동체로서 하나로 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우선 ‘책을 읽는 국민이 되자’는 운동을

출판인과 정부 그리고 관심 있는 사회단체가 앞장 서서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할 때다. 이 독서운동은 단지 개인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불가결의 조건이다. 사유하지 못하는, 상상력이 빈곤한 국민들이 갈 길이 어디겠는가. 우리 문화의 힘,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우리 민족이 진정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큰 안목을 갖고 국민적 독서운동을 같이 전개하자.

국가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출판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문화입국이라는 목표하에 출판산업을 문화전략의 중점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인쇄업이나 제지업 등 여러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도 많다. 올해 도서관에 할당된 예산은 대단히 미미하다. 그 얼마 안되는 예산 중에서도 정작 도서관 구입비는 10%에도 못미친다는 현실은 얼마전까지 국가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나로 하여금 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량이 미국의 일개 대학 도서관에도 못미치고, 서울의 도서관 수준이 동경의 20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책을 읽는 힘은 곧 국가의 동력인 만큼 도서관을 확충하고, 그 도서관에 다량의 그리고 양질의 도서를 보급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씩어지지 않은 역사를 쓰는 손

《4·3은 말한다》(전4권)를 읽고

한림화 · 소설가

출판업을 살리고 국민의 독서량을 늘리게 하는 획기적인 국가시책이 제시돼야 하고, 민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상설기구를 두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독서문화정책을 담당할 민관합동기구를 만들거나, 또 문화체육부 산하에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출판관련학과를 신설, 확대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출판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며, 번역사업과 도서수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지원금의 조성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기를 준비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최대한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선조 출판인의 정신 이어야

출판인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선조 출판인들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다라니경>은 대중적인 출판의 원조격이라고 알고 있다. <팔만대장경> 역시 우리의 자랑스런 출판수준을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에게서 뛰어난 고전도 많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당시의 사조와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고결한 정신과 그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장인의 인쇄술이 동시에 겸비되어 있었다. 출판인들은 <다라니경>을 통해 부처의 정신을 온누리에 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선조의 후예들이다.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위대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았다.

말은 있으나 실천하지 않고, 행정은 있으나 집행하지 않은 채 우리의 출판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도 잘 알고 있다. 오늘의 이런 기회를 하나의 소중한 시작으로, 우리의 출판산업, 우리 문화의 현실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어둠을 쫓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끝으로 얼마전 출간된 다산 선생의 <경세유표> 한자락을 인용하면서 마칠까 한다. "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5월13일 조선회관에서 가진 '서울출판인 포럼' 조찬 강연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울한 날들은 역설적이게도 민초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삶의 시공간일 수밖에 없다. <제민일보>가 창간때부터 무려 8년여 긴 세월을 걸쳐 연재를 하면서 책으로 엮어낸 《4·3은 말한다》도 기랄 곳 없고 믿을 곳 없는 이 땅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삶을 놓치지 않으려 간간함을 다 하던 당시의 보고서에 다름아니다.

일본 제국의 긴 강점에서 드디어 놓여나 새 나라를 건설하여 새 삶을 살아보려 할 그 즈음 위정자들은 이미 망해버린 왕조를 꿈꾸고 있을 뿐 그저 우왕좌왕할 따름이었지 싶다. 이 땅은 열강들이 제멋대로 그어버린 한줄 금줄을 걷어내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두동강이 나기에 이르니, 그제서야 반쪽짜리 나라나마 차지하여 전권을 휘두르려는 헤게모니 쟁탈전에 바쳐질 그릴 듯한 희생제물을 찾아 혈안이 되었다.

유구한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깨끗한 민족을 둘로 쪼개버린 모반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위장을 해야만 했을 것은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땅 사람들이 희생제물 자체의 위력에 압도되어 이성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제물이 어디 없을까 눈을 부라릴 때 제주섬은 그 의도에 알맞은

대한민국의 역사쓰기에서

슬쩍 감추고

역사의 뒤안길로 던져버리니

씩어지지 않은 역사의

원혼으로 구천을 헤매는 그 일을

이제는 깊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제자리에

앉힐 때가 됐다. 이 책은

그 일을 제자리에 앉히는

전초작업임에 틀림없다.

존재였다.

당시 리승만씨는 제주섬이 "붉게 물들었다"고 전제하고, "휘발유를 뿌려 싹 불태워 버리라"고 주저없이 말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제주섬에 살던 민초들은 대략 3분의 1가량이 부분적으로 싹쓸이당했다. 리승만씨와 당시 위정자들은 제주섬의 민초를 희생제물로 바쳐 대한민국을 얻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이 겨레가 삶을 다져온 터의 반밖에는 차지 못한 반쪽짜리 나라이다. 그러나 반쪽짜리 나라일망정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 초장을 쓴 제주의 4·3을 제대로 아는 이,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자초지종을 아는 이 있는가. 있다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아니다. 대한민



한림화씨.

국의 첫 희생제물인 동시에 초석으로 놓인 제주섬의 4·3을 이 나라 국민이라면 몰라서는 안된다. 모르면 이 나라의 국민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 쓰기에서 슬쩍 감추어 역사의 뒤안길로 던져버리니, 싹어지지 않은 역사의 원혼으로 구천을 헤매는 그 일을 이제는 깊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제자리에 앉힐 때가 되었다. 《4·3은 말한다》는 그 일을 제자리에 앉히는 전초작업임에 틀림없다.

4권의 책머리에는, 미국정부의 일원이기도 한 존 메릴 박사의 "전후 점령군에 대항하여 제주도에서와 같은 격렬한 대중적 저항이 분출된 일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4·3은 말한다》는 당시의 점령군정부인 미군정에 저항하는 제주도민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4·3이 단지 점령군에 저항한 대중적 분출에 불과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점령군에 저항한 것만이 아닌, 독립되고 통일된 자주자존의 국가를 이룩하려는 일념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해줄 뭔가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까. 그런 자료는 과연 없는 것일까. 이 아쉬움이 다음편에서는 충족되었으면 한다. ◆

전예원/A5신/각 500면 내외/각 8000원

